

토종 종교, 이질적 서양문명에 창조적으로 맞서다



원불교 발상지인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영산성지. 소태산 박종빈 대중사가 태어나 성장하고 구도의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이뤄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원불교를 창립한 곳이다. <원불교 기록관리실 제공>

박맹수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호남은 신종교의 땅이다. 아니 호남은 '문명 개벽'이라는 인류사적 사명을 띤 개벽종교가 잇따라 탄생한 성지이다. 동학,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와 같은 개벽종교들을 낳은 땅인 것이다.

역사는 긴 안목 즉 장기적 관점(Long Memory)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던 측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1860년 음력 4월5일에 경상도 경주에서 수운 최제우(崔濟愚, 1824-1864) 선생이 동학(東學)이라는 새 종교를 창도한다. 동학 창도는 우리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대사건이었다. 그로부터 34년 뒤에 고부접주 전봉준 장군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이 전라도 땅에서 활활 타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학 창도로부터 약 60년 뒤인 1916년에는 전남 영광에서 소태산 박종빈(朴重彬, 1891-1943)이라는 무명 청년이 '대각(大覺)'을 이루고 풀뿌리 민중들을 모아 새로운 종교운동을 시작한다. 원불교가 창교(創敎)된 것이다.

한국 신종교의 효시인 동학과 그 동학의 실천적 전거라고 볼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에서 일어나고, 다시 동학의 개벽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원불교가 전라도에서 창교되는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역사를 'Long Memory' 곧 긴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긴 안목에서 보아야만 동학과 원불교 창교의 우주사적, 세계사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학과 원불교 등 한국 신종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등장한다. 그렇다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약 1세기 동안의 우리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였을까? 이 시기는 한 마디로 대전환기였다. 우리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역사적 대전환기를 수운 최제우, 소태산 박종빈 등 신종교 창시자들은 '선후천 교역기(先後天 交易期)' 즉 선천 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바뀌는 개벽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풀어 말하면, 한국 신종교들이 등장하는 시대는 이른바 낡은 시대인 선천 시대(先天時代)가 끝나고 새 시대인 후천시대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22>

제5부-도전정신과 정의로 빛어낸 역사

⑥ 호남의 신종교, 격변의 시대에 등장하다

새 시대 열리는 대전환기 '한말개화기'

한 번도 경험 못한 서구문화 밀려오던 때

종래와는 다른 차원의 대응 필요

1860년 경주서 수운 최제우 동학 창도

34년 뒤 전봉준 장군 전라도서 혁명 횃불

1916년 영광 소태산 박종빈 원불교 창교

강일순 증산교·나철 대종교 등

호남은 개벽종교 탄생의 성지

(後天時代)가 열리는 역사적 대전환기라는 말이 되겠다.

한국사를 살펴보면, 신종교의 효시(嚆矢)인 동학과 그 뒤를 이은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등장하기 이전에 두 차례의 커다란 역사적 전환기가 있었다. 그 첫째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걸친 전환기이다. 일반적으로 나말여초(羅末麗初)라 부르는 이 시기는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오는 전환기로서 학자들은 이 전환기를 고대(古代) 사회에서 중세(中世) 사회로 넘어오는 전환기로 보고 있다. 둘째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전환기이다. 이를 줄여 여말선초(麗末鮮初)라 한다. 이 시기를 역사학에서는 중세 전기(中世 前期) 사회에서 중세 후기(後世 後期)로 넘어오는 전환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위의 두 전환기에는 공통되는 특징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두 전환기 모두 동아시아 문화권(또는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이라는 동일 문화권 안에서 일어난 전환기라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이 강력한 통일국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거나 혼란한 시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이 두 차례의 전환기는 모두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때 동시에, 고려와 조선이라는 새로운 통일왕조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요컨대, 위의 두 전환기에는 모두 새 시대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대(古代)와 중세(中世)에 맞이했던 역사적 전환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맞이한 우리나라는 19세기에 그 세 번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동학을 비롯한 한국 신종교들이 잇따라 등장하게 되는 한말개화기(韓末開化期), 곧 한국 신종교에서 말하는 선후천 교역기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세 번째로 맞이한 한말개화기는 과거 두 차례의 역사적 전환기와는 근본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째, 한말개화기라는 전환기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질(異質) 문명, 즉 서양문명이 동아시아를 향해서 몰물듯이 밀려오던 시기였다.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였던 것이다. 일찍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서세동점 현상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종래의 역사적 전환기에 대한 대응(對應)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대응

포고문

동학농민혁명 당시인 1894년 3월20일(음력) 전봉준 장군이 무장에서 혁명의 대의를 담아 포고한 '무장포고문' 원본.

을 요구하고 있었다. 과거 나말여초와 여말선초라는 두 번의 전환기는 모두 '동아시아문화권' 속의 전환기였기 때문에 그 대응이 비교적 수월했다. 왜냐하면 같은 문화권 내의 전환기였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대륙이 강력한 통일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말개화기는 종래의 동아시아문화권=유교문화권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른 서세(西勢), 즉 서구문화권(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다.

동학의 등장은 바로 서세동점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민족이 종교를 통해 창조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다. 동학 창도에 자극받아 증산 강일순(嚴山 姜一淳, 1871-1909), 홍암 나철(弘巖 羅喆, 1863-1916), 소태산 박종빈(少太山 朴重彬, 1891-1943) 등도 각각 증산교(1901), 대종교(1909), 원불교(1916)를 잇따라 탄생시키는 것 역시 그런 창조적 대응 노력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종교를 창시하는 선각자들은 동학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학의 문제의식을 '한편으로는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하고자' 부심했다. 요컨대, 동학의 등장에서부터 1916년 원불교의 개교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사에 있어 가히 종교의 개화기(開花期)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개화를 가능하게 만든 땅이 바로 전라도 호남 땅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학박사
-일본 북해도대학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영산선학대학교 교수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전라도 들여다보기

나주와 영산강문화

김형주

전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나주는 오늘의 전라도를 있게 한 역사적인 고을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전라도는 고려 현종9년(1018년) 전주 일원의 강남도(江南道)와 나주 일원의 해양도(海陽道)를 통합하여 만든 행정구역으로 정도(定道) 1000년을 앞두고 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 54개의 소국 가운데 나주에는 임소반국(臨素半國), 신운신국(臣雲新國), 불미지국(不彌支國)이 위치하였다고 전해진다. 백제시대에는 발라군(發羅郡), 반나부리현(半奈夫里縣),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 등 3개의 군현이 설치되었다. 신라 통일 후 발라군은 통의군을 거쳐 금성군, 반나부리현은 반남현, 미동부리현은 현웅현(남평지역)으로 개칭하였다. 940년 금성군이 나주군으로 개칭되었고 983년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나주목으로 승격되어 계수관을 두었다. 이후 조선 말까지 줄곧 전라도 남부의 수부(首府)로서의 역할을 해오다가 1986년 광주에 전남관찰부(도청)를 개설하면서 천년 동안 누려온 빛나는 영광을 잃게 되었다.

영산강은 담양의 용추봉의 가마골에서 발원하여 담양·장성·광주·나주·화순·영암·무안·목포 등 무려 8개 시·군에 걸쳐 비옥한 곡창 호남 서남부의 평야지대를 유역으로 하여 흐르는 젖줄이 되고 있다. 나주는 영산강의 중심부로 너른 유역권의 문화가 모여들어 꽃을 활짝 피운 보배롭고 축복받은 땅이라 할 수 있다. 영산강의 명칭은 종류에 위치한 나주와 영산포에 의해 변천이 짐작되었다. 나주는 통일신라시대에는 금성군(錦城郡)으로 불리어서 영산강을 '금천(錦川)', '금강(錦江)'이라 했고 나루터는 금강진(錦江津)이라 했다. 고려 말기에는 창평하는 왜구 집략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나온 공도(空島)정책에 따라 흑산도에 떨어진 영산도(永山島) 사람들을 나주 남쪽의 강변으로 이주시켰는데 그곳을 영산포(榮山浦)로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영산포가 크게 번창하자 강 이름도 '영산강'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천의 유역에는 영산강문화라 불려도 좋을 육지배기, 나주들노래 등 유장하고 질펀한 남도소리와 벼농사지역 특유의 주민협동과 단결을 도모하는 줄다리기, 고사울 등의 민속놀이와 같은 다양한 호남의 농경문화가 생성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후기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농촌인구의 격감으로 화려했던 영산강의 농경문화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영산강은 호남의 정신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구심체로서 권역의 문화를 한데 아우르는 문화권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활동과 현재에도 진행 중인 문화현상의 계승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명실상부한 전남의 중심부 나주로 도청이 이전되었다면, 광주전남의 균질적 상생발전의 축진은 물론이려니와 광주의 거대도시로의 성장에 획기적 기여를 하였을 것인바, 다수의 뜻있는 지역민들에게 두고두고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